

올란드 대통령의 미국 국민 방문 성과 분석 및 향후 전망

(‘14. 2. 26)

파리사무소

◆ ‘14년 2월, 프랑스의 올란드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의 초대로 미국을 국민 방문함.

- 사르코지 대통령 이후 정치/외교 면에서 한층 가까워진 양국 관계가 올란드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함.
- 다만, 올란드 대통령의 사회주의적 경제정책에 대해 미국 산업계가 가진 회의적 시선이 아직도 상존하는 바, 올란드 대통령이 의도한 프랑스로의 투자유치 등 경기 회복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지는 좀더 지켜봐야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 백악관, 주미 프랑스 대사관 및 주요 언론 발표자료>

1 올란드 대통령의 국민 방문 경과

□ 프랑스의 올란드 대통령은 지난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미국을 국민 방문함.

- 프랑스 국가원수의 미국 국민 방문은 ‘96년 자크 시라크 대통령 이후 거의 18년만에 이루어졌으며, 연 평균 1회 정도에 불과한 미국 정부의 국민 방문 초청 사례를 고려할 때 미국, 프랑스는 물론 많은 나라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음.

* 오바마 대통령 취임이후 6년간 국민방문 총 5회에 불과. 가장 최근 국민방문은 ‘11년 우리나라의 이명박 대통령 국민 방문이었음.

- 특히, 비슷한 시기에 러시아 소치에서 열린 동계 올림픽에 전세계 주요국가 정상들이 거의 대부분 참석하여 정상급 스포츠 외교를 펼

치고 있는 와중에 양국 정상이나 나란히 동 행사에 불참한 것은 전 세계 외교 전문가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음.

- 2.10(월) 미국에 도착한 올란드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과의 국민 만찬, 바이든 부통령 및 존 케리 국무장관 등과의 오찬, IMF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프랑스인) 및 세계은행 김용 총재와의 만찬, 미국계 주요 기업가들과의 만남 등을 포함, 바쁜 일정을 소화함.

<올란드 대통령의 미국 국민 방문 일정>

| 일 시 | | 주 요 내 용 |
|---------|-------|--|
| 2.10(월) | 14:30 | 올란드 대통령 미국 도착 |
| | 16:30 | 양국 정상,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의 고향인 버지니아주 몬티첼로 방문 |
| | 20:00 |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 및 세계은행 김용 총재와 만찬 |
| 2.11(화) | 09:00 | 백악관 환영식 및 정상회담 |
| | 12:00 | 양국 정상 공동 기자회견 |
| | 13:15 | 조셉 바이든 부통령, 존 케리 국무장관과의 오찬 |
| | 15:15 | 알링턴 국립묘지 참배 |
| | 15:45 | 2차 대전 참전용사 6명에 대한 훈장 수여식 |
| | 16:30 | 미국 산업계 지도자들과의 만남 |
| | 19:00 | 오바마 대통령 주관 국민 만찬 |
| 2.12(수) | 11:00 | 샌프란시스코 시장 및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회동 |
| | 12:30 | 미국 산업계 지도자들과의 만남 |
| | 14:15 | US-French Tech Hub** 개소식 참석 |
| | 16:00 | 미국내 프랑스 교민과의 만남의 시간 |

* 이른바 ‘미국 건국의 아버지’중 한 명이자 미국 제3대 대통령 역임 전에 초대 주 프랑스 미국 대사를 지낸 대표적인 친불 인사로 미국 독립전쟁에 직접 참전했던 라파예트 후작 (Gilbert du Motier, Marquis de Lafayette)과 함께 미-불간의 우호를 상징하는 인물임.

** 미국 내에서 활동중인 프랑스 창업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에 설립된 일종의 incubating 조직. 프랑스 정부의 도움을 받아 주로 신성장 산업(의료/보건, 재생에너지, 3D Printing 등)에 종사하는 프랑스 기업을 지원함.

자료 출처 : 주미 프랑스 대사관(<http://www.franceintheus.org>)

2 국민 방문의 주요 특징

□ 금번 국민 방문은 일정 시작 이전부터 올란드 대통령의 사생활 문제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주목을 받았음.

○ 국민 방문 수주 전 올란드 대통령이 동거녀인 발레리 트리에이바 이에 몰래 프랑스 유명 여배우인 줄리 가예와 밀회를 즐기고 있다는 사실이 폭로되고 곧이어 동거녀와 결별하면서 미국측은 급하게 국민방문 일정을 수정해야만 했음.

* '07년에는 당시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몇 주를 앞두고 당시 2번째 부인이었던 세실리아 아피아스와의 이혼을 발표하면서 비슷한 소동이 벌어진 적이 있음.

○ 미국 방문 전에 올란드 대통령이 잠시 영국을 방문하여 데이비드 카메런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가지던 도중 영국 기자 한명이 올란드 대통령의 '사생활이 프랑스를 국제적인 조롱거리로 만든 것 아닌가'라고 질문하자 올란드 대통령은 답변을 거부*하기도 했음.

* '14.2.18, 영국 Telegraph지 보도(White House destroys Francois Hollande state dinner invitations)

□ 한편, 금번 국민 방문 이전의 최근 10여년간 미국-프랑스 관계를 살펴볼 때, 항상 우호적이지는 않았음.

○ 11년전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프랑스가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하면서 양국관계는 최악이 시기를 맞았음.

* 당시 프랑스의 자크 시라크 대통령은 '미국의 주장과는 달리 이라크는 현재 세계 평화에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고 공개 석상에서 발언하기도 했음.

○ 프랑스가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외교정책에 가장 큰 반대세력으로 등장하면서 이에 반감을 느낀 미국 하원의원들은 구내 식당의 감자튀김 메뉴를 '프렌치 프라이'에서 '프리덤 프라이'로 바꾸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음.

○ 그 이후로 전 대통령인 니콜라 사르코지가 미국과 관계복원에 주력하면서 양국 관계는 정상화의 단계에 들어섰고,

○ 지난해 가을 오바마 대통령은 시리아의 바샤 알 아사드 정부가 자국민을 대상으로 화학무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시리아에 대한 공격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이에 올랑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화답하면서 이목을 끌었음.

* 자국 의회가 공습에 반대표를 던지면서 영국이 잠시 머뭇거리는 사이 올랑드 대통령은 시리아를 징벌(punish)해야 한다는 강력한 논조로 미국에 동조함. 올랑드 대통령은 과거 자국 식민지였거나 또는 자국과의 경제적 관계가 긴밀한 리비아, 말리 및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등에 프랑스군을 파견하여 이슬람 세력과 교전에 나섰음. 미국도 동 국가에 대한 무력개입에 나섰으나, 미국이 예상한 것보다 프랑스의 역할이 커지면서 미국으로서는 군사개입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었음.

○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시리아 공습을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한발 뒤로 물러서면서 결국 올랑드 대통령만 국제사회에서 정치적으로 고립되는 상황이 벌어짐.

○ 게다가 프랑스인들을 대상으로 한 나이지리아 정유공장 테러가 발생하고, 현재 중동지역에서 인질로 잡힌 6명의 프랑스인에 대한 생사여부도 미확인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올랑드 대통령의 공격적이고 친미적인 외교 정책은 국내에서도 상당한 반대에 직면함.

○ 게다가, 최근 들어서는 미국-EU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프랑스가 소극적이라는 미국의 비난과 함께, 프랑스 주요 기업의 이란 방문 및 경제협력 모색에 대한 미국의 불편한 심기가 존 케리 국무장관의 비난 발언을 통해 드러나기도 했음.

□ 그러자, 250년 전에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이념을 함께 가꾸어냈던 과거를 강조하면서 양국간의 친선우호관계가 최근의 몇몇 이슈로 인해 영향받지 않는다는 모습을 과시하기 위해 양측은 금번 국민 방문 준비에 상당한 노력을 들였음.

* 올랑드 대통령은 미국 도착후 연설을 통해 ‘양국은 제퍼슨과 라파예트 때에도 친구였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친구일 것’이라고 천명하였으며, 오바마 대통령과 대통령 전용기를 같이 타고 제퍼슨 대통령의 고향을 방문한 것도 이러한 친선관계를 강조하기 위한 행사였음.

- 또한, 국민 만찬 직전에 양국 정상은 각각 양국의 유력 일간지에 공동 사설을 게재하여 지난 10여년 동안 발전한 양국 관계에 대해 언급하기도 하였음.

3 국민 방문중 주요 논의 사항

- 금번 국민 방문시 양국 정상간 회담의 상당 부분은 이란과 시리아 처리 방안, 미국 정부의 정보 수집 활동 등을 포함한 국제 외교 문제에 할애되었음.
 - 이외에도 유럽의 경제회복 등 유로 지역 이슈와 미국과 EU간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에서 프랑스가 좀더 적극적인 역할 해달라는 미국의 요구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양국 공동 대응 등 미래 세계를 규정할 여러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그러나, 많은 경제계 인사들의 관심을 끈 것은 국민 방문의 맨 마지막 부분을 차지한 미국 기업인들과의 만남이었음.
 - 미국과 프랑스는 상호간 주요 교역 상대로서, 연간 교역규모가 773억불('13년 기준, [붙임 1] 참조)에 달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매년 대미 무역에서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
 - 해외 투자 측면에서도 프랑스는 미국에 총 2,220억불('12년말 투자잔액 기준)을 투자하였으며, 미국내 약 52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 반면, 미국의 대 프랑스 투자잔액은 830억불에 그치고 있는 상황임. (붙임 2 : 주미 프랑스 대사관 홈페이지 자료 참조)
 - 이코노미스트지에 의하면 '13년중 프랑스에 투자하여 사업을 영위 중인 미국 기업인들의 사업 의욕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여전히 올랑드 대통령은 ‘무려 75%에 달하는 부자세를 도입한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있는 상황임.

* The Economist, '14.2.8자, 'Mr. Hollande goes to Washington' 기사 中

- 실제로, 지난해 미국 기업 Yahoo가 프랑스의 온라인 비디오 공유 사이트인 Dailymotion 지분의 75%를 인수하려 하자 프랑스 정부는 이를 불허하였고,
- 미국에서 시작된 모바일-앱 택시 서비스인 Uber가 프랑스에 상륙하여 성공을 거두자, 파리의 택시 운전기사들이 격렬한 시위를 벌이는 등 경제 부문에서 양국간 관계는 다소 불편한 상황

4 국민 방문에 대한 평가

□ 금번 국민 방문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비교적 긍정적인임.

- 사르코지 대통령 이후로 정치 및 외교적 측면에서 가까웠던 양국 관계가 더욱더 공고해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임.
- ‘과거(제퍼슨 고향 방문, 2차 대전 참전용사 면담 등)’를 회고하고, ‘현재(주요 외교 현안)’를 논의한 후, ‘미래’(미국 기업가와의 면담)를 지향하는 모습을 전세계에 보여줌으로써, 차별화된 정상외교의 전형을 보여줬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

□ 다만, 경제외교 측면에서, ‘올랑드 대통령이 ‘사회주의자’라는 이미지를 벗고 기업친화적 이미지로 변신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대해 미국 언론이 아직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임.

- 이에, 올랑드 대통령은 US-French Tech Hub의 개소식에 참석하고 미국 유수의 기업을 초청하여 프랑스내 투자 유치를 호소하면서 프랑스가 가진 ‘혁신적이고 기업친화적 면’을 보여주려고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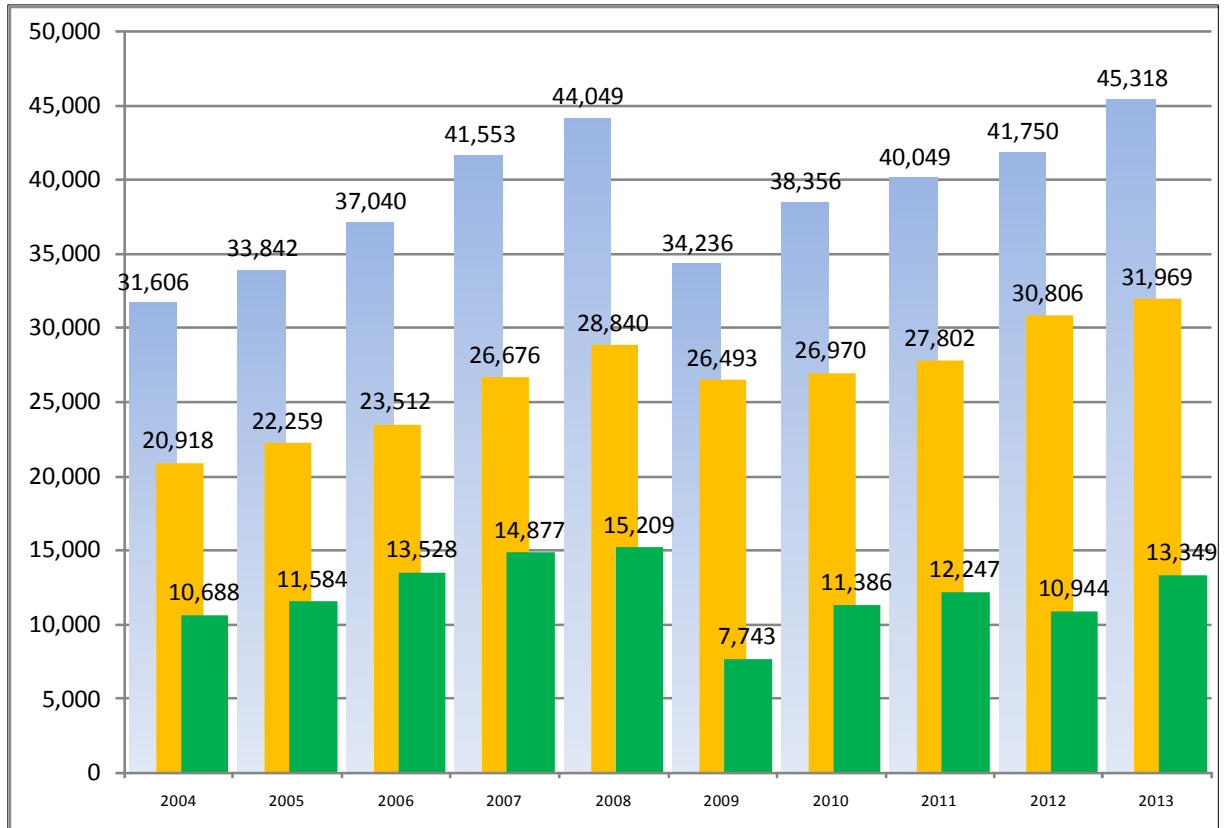
하였음.

- 현재 프랑스 정부의 '디지털 이코노미 장관'을 맡고 있는 플뢰르 페를랭 장관이 올랑드 대통령에게 벤처기업 육성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하면서 당초 올랑드 대통령이 추진했던 '지나치게 사회주의적 경제정책'이 상당부분 순화되었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임.
- 마지막으로, 프랑스 및 유럽 지역의 경기 회복 속도에 따라 금번 미국 국빈 방문을 통해 프랑스 기업의 투자 활성화 및 미국 진출 확대를 모색한 올랑드 대통령의 노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전망.
- 한편,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유럽의회 선거 및 금년 중 실시될 프랑스내 지방선거에서 우파의 선전이 예상되면서 올랑드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벤처기업 우대 등을 포함한 경제정책이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붙임 1>

< 최근 10년간 미국-프랑스 교역규모 >

(단위 : 백만불)



* 청색 : 프랑스의 대미수출, 황색 : 프랑스의 수입, 녹색 : 프랑스의 대미 무역 흑자 규모

| 연도 | exports to US | Imports from US | 무역수지 |
|------|---------------|-----------------|----------|
| 2004 | 31,605.7 | 20,917.7 | 10,688.0 |
| 2005 | 33,842.1 | 22,258.6 | 11,583.5 |
| 2006 | 37,039.6 | 23,511.8 | 13,527.8 |
| 2007 | 41,552.7 | 26,676.0 | 14,876.7 |
| 2008 | 44,049.3 | 28,840.1 | 15,209.2 |
| 2009 | 34,236.0 | 26,493.0 | 7,743.0 |
| 2010 | 38,355.5 | 26,970.0 | 11,385.5 |
| 2011 | 40,049.1 | 27,802.1 | 12,247.0 |
| 2012 | 41,749.8 | 30,806.0 | 10,943.8 |
| 2013 | 45,318.4 | 31,969.1 | 13,349.3 |

* 자료 : US Census Bureau(www.census.gov/foreign-trade/balance/c4279.html#2013)

<붙임 2>

< US-France Economic and Commercial Partnership>

FACT SHEET

France is one of the United States' largest and most important commercial partners. The strength of our economic relationship is based on extensive bilateral trade as well as substantial investment in each other's markets, both of which create high quality, well-paying jobs. Our dynamic economic partnership also drives cooperation in other cooperative fora such as the G8 and G20.

Jobs and Investment

France is a key sourc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and jobs in the United States. The total stock of French FDI in the United States stood at \$222 billion at the end of 2012. France is one of the top five sources of jobs created by FDI in the United States, with U.S. affiliates of French firms employing approximately 525,000 Americans in 2011 at an average wage of nearly \$80,000. At the same time, the United States was the leading job-creating investor in France in 2012, with U.S. FDI stock in France totaling \$83 billion. More than 1,240 affiliates of U.S. firms were present in 2012 in France, supporting an estimated 440,000 jobs.

Trade

France was the United States' 8th largest goods trading partner in 2013, with U.S. goods exports to France valued at \$32 billion and imports from France totaling \$45 billion. The United States is France's largest customer for goods outside of the European Union. Almost 25 percent of bilateral goods trade is in the aerospace sector, evidencing the interconnectedness of the global supply chains of major aircraft manufacturers on both sides of the Atlantic.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are also key trading partners in services, with U.S. services exports to France reaching \$15.1 billion in the first nine months of 2013 and services imports from France valued at \$11.7 billion during the same period. The United States and France, through its membership in the European Union, are engaged in negotiation of a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 The United States seeks to deepen economic ties with Europe through an ambitious and comprehensive agreement.

Launching of Bilateral Economic-Commercial Dialogue

The U.S. Department of Commerce and French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have agreed to establish a “U.S.-France Economic-Commercial Dialogue” to enhance bilateral cooperation and to expand trade and investment. The dialogue aims to facilitate the exchange of information and encourage bilateral discussions to identify ways to boost jobs and growth in both countries and to improve competitiveness through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Potential items for discussion and cooperation include: development and support of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SMEs); encouragement of direct investment in both directions; strategies to promote advanced manufacturing,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workforce training; promotion of green products and energy technologies; market access issues; and the potential benefits of the T-TIP. The dialogue will be co-chaired by the Commerce Assistant Secretary for Global Markets and an equivalent level Economy Ministry official. The two sides aim to hold a first meeting of the dialogue in May or June of 2014.

자료 : 주미 프랑스 대사관